

與 단독 소집 vs 野 장외 고수... 줄다리기 팽팽

떠나는 양건 감사원장 “외풍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 민주 “사퇴 자체가 위헌”... 파장 확산

결산국회 첫날부터 파행... 서로 책임 떠넘기기

새누리 “민생 충실해야 할 민주당 정쟁에만 몰두” 민주당 “국정원 정국 탈출위한 여론 호도용 꼼수”

국회는 26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전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4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첫날부터 파행 운영됐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했지만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법제사법위, 농림수산식품해양위, 여

성가족위는 일단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들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가 새누리당의 단독소집에 대한 부당성만 지적한 뒤 산회를 선언했다.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회의에서 “꼭우·가뭄 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남해안

적조현상이 동해안까지 번져 어민들 역시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결산문제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는 농·어촌 관련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 제대로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심사만을 위한 상임위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거 10년간 결산심사의 결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상 9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후 예정된 사법제도개혁특위 제도개혁심사소위의 경우, 오래전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

의된 만큼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가 끝났는데도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장외투쟁 철퇴를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지지 여부는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부터 무엇보다 국회에서 민생에 충실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결산국회 소집을 ‘국정원 정국’에서 탈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규정하면서 단독국회 철퇴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에서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소집은 여론 호도용으로 깨닫든 공여지책”이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행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등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결산국회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신기남 의원은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임위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장외투쟁 동력 약화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양쪽을 다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신 사퇴한 양건 감사원장이 ‘외풍에 역부족’이란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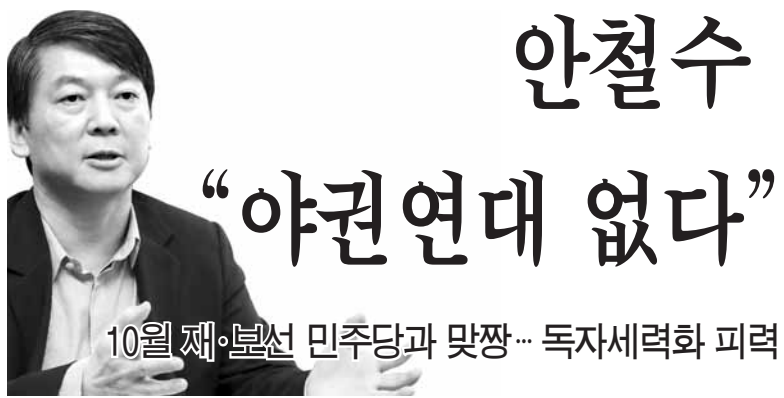
양 감사원장은 26일 이임식에서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려야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양 원장은 또 자신의 사퇴에 대해 “감사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는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감사원장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임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건 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그 배경에 주목한다”며 “청와대는 헌법기관에 대한 유린을 중단하고, 감사원에 행사한 ‘역류’와 ‘외풍’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그 자체가 문제다.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라며 “박근혜정부는 감사원을 정권의 시너로 만든 이명박 정권을 넘어, 친이-친박의 당내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조의 헌세를 들인 대운하 사기극을 덮고 헌법기구인 감사원을 정권의 수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야권연대 없다”

10월 재·보선 민주당과 맞짱... 독자세력화 피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6일 10월 재·보선에서의 야권 연대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서울 노원 병(丙) 선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나 야권 연대 없이 선거에 임할 것임을 확인한 뒤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0월 재·보선이 실시되는 전 지역은 아니더라도 적합한 분이 있으면 후보를 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8일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10월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야권 협조 문제에 대해 “지난 노원 재보선에서 단일화 없이 독자적 행보를 했는데 낮은 투표율에도 60%대의 높은 지지율로 이겼다”는 발언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10월 재·보선 후보들은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야를 뛰어넘는 독자세력화를 선언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계속 열심히 노력 중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마치 물이 끓을 때 보면 어느 순간에 끓지, 그 전엔 온도가 높아도 끓지 않아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은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세력화의 최종 목표가 정당이나’는 질문에 대해선 “그쪽(정당) 방향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신당 창당 시기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는 물음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적절한 정도의 사람이 모이면 저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 그 상황에 맞게 적극 대응한다는 것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대치 정국이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 의원은 “지금 시점에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청와대”라면서 “여야간에는 3자회담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으나,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서 국면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대표 “국회와 광장 균형 깨지지않게 할 것”

“민주주의 회복 그날까지” 장기전 불사 거듭확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민주당은 원내의 병행투쟁에서 국회와 광장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대표가 노숙하면 동참하겠다는 지원자가 국회의원 중에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결산국회나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해 놓은 국회 일정에 협

조하지 않고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의 통틀 국회에 등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가을에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의 관심이 광장 넘어서 하늘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에 당의 명운을 건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한 각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게 민주주의와 민생 분야에서 박근혜정부가 수준미달 점수라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또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을 거론,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보육공약을 이행하라는 말이 왜 선거법 위반 일일 공약을 이행하라는 걸 비난할 게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 추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가 라운지

김동철 ‘산단 복지시설 국비지원 법안’ 발의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집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이나 근로자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전액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 내에서 고용을 늘린 사업



주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산업단지공단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 산업단지의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의 산업단지는 1000여개로 이중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는 323개(148만8373명)에 달한다. 광주에선 첨단1단계·소촌농공·소촌일반·하남·송암·본촌 등 6개 산단이 이에 속하고 1750여개 업체, 5만여명이 고용돼 있다.

임내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정책 반영

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은 26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정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전국 33만 신혼부부 가구가 요건을 구비할 경우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이용하던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대 4.66%로 연 0.4%인 전세자금 보증료를까지 합산했



을 연 5%가 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하게 되면 연 3.3%로 저렴해진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이 불가능했지만, 담보대출과 같이 대출과 상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